

주말에 아빠! 저기가

북구평생학습페스티벌

습지공원에서 ‘예술가든 캠핑’

광주과학관 ‘발명 페스티벌’

이번 주말에도 거실에 누워 스포츠 중계를 볼 건가요? 바깥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다. 주말 광주 곳곳에서 아이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는 20일 시민들과 함께 문화예술을 나누고 즐기는 예술가든 캠핑이 펼쳐진다. 광주시 북구(구청장 송광운)가 주최하고 다점아트컴퍼니(대표 김규량), 광주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가 주관하는 2014광주북구평생학습페스티벌 ‘3GO 가든산책’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옆 용봉초록습지공원에서 열린다.

‘3GO(배우고·나누고·즐기고) 가든 산책’ 행사에는 평생학습교육기관 및 단체, 동아리 등 모두 82개팀이 참여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캠핑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용봉초록습지야 안녕’을 테마로 가족과 함께하는 그림잔치가 열리고, 숲 속 음악작이는 도서관에서는 헌책 기증캠페인, 사립책읽기, 북아트, 생태습지투어, 전시, 체험프로그램 등이 펼쳐진다.

또 최광문재즈퀸트의 공연을 시작으로 월드뮤직, 국악, 클래식, 댄스 연극 등 문화예술공연이 함께 열린다. 직접 만든 수제초록빵, 핸드드립커피,떡 등 먹을거리



가든캠핑 모습.

부스도 마련돼 있다. 문의 062-510-1224.

과학에 눈을 돌려도 색다른 가을 주말을 보낼 수 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광주과학관 야외광장에서 ‘2014 광주 과학발명 페스티벌’과 ‘제1회 과학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무한상상으로 커가는 꿈’을 테마로 열리는 ‘2014 광주 과학발명 페스티벌’은 과학발명마을 체험프로그램, 과학발명 공연 등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태양열 UFO 풍선 날리기, 과학사 퀴즈경연대회, 아이스크림 비누만들기 등 참여 프로그램과 ‘작은 음악회’, ‘샌드아트’, ‘글라스 하프’ 등 예술과 과학 융합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과학관 상상실에서 ‘과학으로 로마보기, 콜

로세움’을 주제로 과학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유우상·최혜영 전남대 교수, 임경순 포항공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과학발명 페스티벌은 무료이며, 과학 토크콘서트는 ‘로마 과학기술전’ 관람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960-6210.

‘사람이 모이고, 솜씨가 보태진’ ‘월당송 모태모태’도 1주년을 맞아 20일 행사를 갖는다. 20일 오후 2~6시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핸드메이드, 홈메이드 먹거리, 살림거리 상품들을 판매하는 ‘모태모태마켓’, 아이들이 직접 자신들이 쓰던 물건을 판매하는 ‘어린이 마켓’, 숨겨진 끼를 선보이는 월당송 음악회로 구성된다.

문의 062-959-8525. /김경민기자 kki@



광주비엔날레재단 신임 대표이사로서 선임된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18일 재단 사무실에서 신임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6개월 내 혁신안 내놓을 비엔날레 ‘구원투수’ 될까

정동채 광주비엔날레재단 신임 대표이사

광주비엔날레재단 신임 대표이사로서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선임되면서 광주비엔날레가 새 국면을 맞았다. 정 전 장관은 내년 5월31일까지 6개월간 재단을 이끌면서 광주비엔날레 비상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 광주비엔날레 혁신 작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용우 전 대표이사가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전시유보 사태로 물러난 가운데 정 전 장관이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시적 대표이사’인 정 전 장관이 주어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작원과 지역사회, 세계 미술계를 두루 살피면서 ‘구원투수’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윤장현 시장이 제안 “봉사하는 게 도리”

11월 비엔날레 폐막 후 혁신 작업 돌입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임기 제한 걸림돌

◇광주비엔날레 향후 계획=광주비엔날레재단은 18일 오전 재단 사무실에서 제136차 이사회를 열고, “정관 개정”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대표이사 임명” 등에 관한 3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광주시장이 맡고 있는 광주비엔날레재단 당연직 이사장을 명예이사장으로,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로 선출하기로 정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윤 시장은 광주비엔날레 이사장에서 명예이사장으로 한발 물러나면서 실질적인 결재 등 모든 책임과 권한을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지니게 됐다. 현재 이사장은 공석이다.

광주비엔날레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1월 9일 광주비엔날레 폐막 시점에 맞춰 본격적인 혁신 작업에 돌입한다.

위원회는 11월9일 이전 내·외부 인사 15명으로 구성되며 광주비엔날레 폐막 후 본격운영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기획, 조직, 인사, 재정, 기금 등 광주비엔날레 운영 전반에 걸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이사회에서 검토 및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사장과 명예이사장 정관이 개정되면서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또 오는 12월 22일 광주비엔날레 이사 중 당연직 5명을 제외한 17명 중 16명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신임 이사 선출에도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장관은 “문화부 인맥 등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많은 분들과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선임배경=정 전 장관이 새 대표이사에 선임된 데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의뢰가 크게 작용했다. 둘은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 동문으로 정 장관은 평소에도 윤 시장의 멘토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8월 말 윤 시장님이 비엔날레를 맡아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사양했고, 재차 제의해와 최장 6개월 동안 조직을 정상화시키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지역 사회의 도움으로 장

관과 국회의원을 할 수 있었고, 광주비엔날레 출범 초기 기금 모금과 장관 시절 예산 지원을 도운 사람으로서 비엔날레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봉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에도 윤 시장에게 20년이 된 광주비엔날레를 경영과 조직의 문제에서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윤 시장의 의견처럼 시의 간섭을 단호하게 거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논란=“흠이 많은 사람”이라고 본인이 밝힌 것처럼 정 전 장관의 불미스러운 이력은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전 장관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때 선대본부 운영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추징금 4억6196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정관 제2장 제6조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광주비엔날레재단 관계자는 “현재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장관의 임기인 내년 5월31일 이전에 형이 확정될 경우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는 최종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1심 판결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위해제된다.

정 전 장관의 임기가 제한돼 있는 것도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짧은 시간 동안 조직과 지역 사회의 의지를 살피면서 국제적인 행사인 광주비엔날레의 혁신안을 내놓는 것이 ‘한시적 대표이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함께 춤을 추어요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 ‘춤, 광주를 품다’

그린발레단 ‘차세대 작가전-트리니티III’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은 올 한해 ‘광주동구아트로드 페스티벌’을 통해 동구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춤사위를 선보이고 있다.

20일 오후 3시 의재로 전통문화관 너른마당에서 열리는 ‘춤, 광주를 품다’에서는 무용단의 우수 레퍼토리 작품 ‘단청, 불교 푸른 시간’을 공연한다.

이번 작품은 지난 2001년 초연 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천불, 천년을 꿈꾸다’ 중 제2막을 전문문화관 무대에 맞게 재구성했다.

화산 운주사 천불전탑 설화를 소재로 한 원작 중 불교적 색채와 한국적 정서로 표현됐던 장면들을 우리 고유 이미지 ‘단청’을 모티브로 새롭게 재해석했다.

김보빈·선유라·김현재·이지원·차정은·김유진씨 등이 출연한다.

또 박주희(그랑무용단 대표), 나은영씨의 지도를 받은 광주 시민들의 라인댄스 공연도 열린다.

시내 곳곳에 세워진 광주 폴리에서도 공연이 열린다.

무용단은 오는 24일 오후 1시30분 ‘춤, 광주 폴리를 품다’를 주제로 조선대 무용과 문화 행사 기획 수강 대학생들과 함께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문화전당 앞에 세워진 프란시스코 사난작 ‘광주 사랑방’, 장동 로터리의 후안 헤레로작 ‘소통의 오두막’, 대성학원 앞에 설치된 요시히루 츠카모토의 ‘잠망경과 정자’에서 공연이 열린다. 참가자들은 폴리를 몸으로 표현해보거나, 폴리 음절을 몸으로 표현해보거나, 사진을 보고 폴리에 따라해 보는 등 예술미션을 수행한다. 문의 062-230-7423.

그린발레단(단장 박경숙 광주여대 교수)은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두번째 공연으로 ‘차세대 작가전-트리니티III’를 무대에 올린다.

트리니티는 정통 발레를 기본으로 젊은 안무가들이 참신한 작품을 선보이는 시리즈다.

발레리나 김정희씨가 대본을 쓰고 노르보예프 벨리페와 함께 안무한 ‘해프닝’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귀에 친숙한 팝송 등을 배경 삼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국악과 발레가 어우러진 ‘무늬’ 역시 색다른 시도다. 조가영씨가 안무를 맡은 작품으로 사랑, 이별, 그리움, 갈등 등 인간의 희로애락을 풀어낸 작품이다.

국악 실내악단 ‘황토제’가 협연한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 눈에 띄는 건 김복희 한국무용협회 이사장이 안무한 ‘살꽃바람꽃-신부’다.

한국 현대 무용의 개척자로 꼽히는 김이사장이 직접 무대에 서는 작품으로 첫날밤 소박함은 여인을 소재로 하고 있다. 서정주의 시 ‘신부’가 원작으로 김복희씨와 천성우씨가 함께 출연한다.

전석 1만원. 문의 062-960-898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뮤지컬 속 음악

광장음악회 내일 품앗이 호수공원

제62회 광장음악회가 20일 오후 7시 서구 품앗이호수공원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는 영화와 뮤지컬 등으로 시민들에게 익숙한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

다. 반주는 이유정 광주대 음악학부 외래교수가 맡았다.

비올리스트 김유나(대전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의 ‘오페라’가 첫 무대를 꾸민다. 이어 소프라노 김혜미와 소프라노 이승희가 영화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이중창 ‘부드러운 산들바람’을 들려준다.

바리톤 이호민은 영화 ‘물방조’에 나왔

던 ‘날 잊지 말아주소’와 영화 ‘토스카’에 나왔던 ‘침묵의 가수’를 노래한다.

첼리스트 김황균은 영화 ‘안나 프블로바’에 나왔던 ‘백조’를, 바이올리니스트 이창훈은 영화 ‘원더리스트’ 중 메인 테마를 연주한다.

이 밖에도 소프라노 김혜미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등에 나왔던 곡들을 들려준다. 공연은 무료다. /김미은기자 mekim@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20년은 가는데!!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트라이슈머 탑코팅 시공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탤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